

# 무료 공영주차장 폐차장으로 전락

### 번호판 없이 녹슬고 타이어 바람 빠진 차 수두룩 주변 미관도 저해... 어렵게 연락되면 "내 차 아냐" 주민들 "주차공간도 부족하는데... 강력 조치해야"

무료 공영주차장이 무단 장기방치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차난과 함께 환경저해 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제주시 무료 공영주차장 곳곳에는 번호판이 떼어진 채 무단 방치된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차량들은 오랜 기간 방치됐는지 곳곳에 녹이 슬어 있거나,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었다. 특히 한 트럭은 내·외부에 걸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차량 무단방치 행위는 주변 미관저해와 함께 악취를 발생시키며 위

생문제를 유발하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도민 김모(35)씨는 "방치차량으로 인해 주차할 공간이 없을 때 가장 화가 난다"며 "공영주차장이 폐차장이 된 것 같다. 문제가 많은데 행정에서 왜 조치를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무단 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방치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자동차관리법 26조에는 자동차를 장기간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적인 및 폐차처리를 할 수 있고,

무단방치자에게는 10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은 상황이 다르다. 장기방치 차량에 대해 강제이동 등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행정에서는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도 공영주차장은 국민 모두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치 차량들도 사정이 있어 주차를 한 것으로 판단한 점도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 미납으로 번호판이 떼어져도, 차를 압류당해 장기 주차돼도 행정에선 손 쓸 수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정은 단속이 아닌 계도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유자가 연락을 안받는 경우도 다반사고, 연락이 닿아 이동해달라 요청해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어서다.

민원이 잇따르자 제주도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강제처리를 골자로 한 주차장 법 개정 건의를 했지만 '불가' 회신을 받으며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차량 값이 낮다든지, 낡은 차와 더불어 쓰레기를 처리하기 곤란할때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주차장 관리 인원은 9명 밖에 되지 않아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조례라도 개정 가능한지 여부 등 다방면으로 처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쓰레기가 가득 실린 채 방치된 트럭(왼쪽)과 차량번호가 지워진 채 방치된 차량.



강희만기자

# 제주 코로나 집단감염 여파 지속

### 25~26일 지인 모임 1명·초등학교발 2명 추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도내에서 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어,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7명(2840~2846번)이 추가 확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846명, 이날 들어서는 23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1주일 사이 64명이 확진돼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9.14명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7명 중 4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았다.

또 기존 도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4명 가운데 3명이 집단감염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은 추석 이후 새롭게 나타난 집단 감염인 '제주시 지인 4'와 연결 고리가 있으며 2명은 '서귀포시 초등학교' 집단감염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인 4' 집단 감염 확진자는 8명, 서귀포시 초등학교' 집단 감염자는 47명으로 각각 늘었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 미숙 감귤 유통시도 선과장 적발

### 당도 상품 기준 미달 자치경찰단 2.1t 폐기

극조생 미숙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돼 전량 폐기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감귤 상품기준인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극조생 감귤 2.1t을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A선과장을 적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자치경찰과 서귀포시는 현장에서 당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도 기준 미달로 확인됨에 따라 전량 폐기토록 조치했다.

서귀포시는 해당 선과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월 1일 이전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전에 당도와 착색비율 검사를 의뢰해 당도 8브릭스 이상·착색비율 50% 이상인 경우에만 출하가 가능하다.

감귤 강제 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의 행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 점검반은 9월 말까지 풋귤 유통 및 감귤 강제 착색에 이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제주감귤의 신뢰 향상과 가격안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명으로 4개 단속반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행정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악취 '풀풀'... 알고보니 부적정 액비

### 제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4곳서 위반사항 8건 적발

악취를 유발하는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체들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4개 업체에서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여부 ▷액비

살포기준 및 적정액비 살포량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 발생에 따라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확인,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성분 분석을 의뢰한 후 액비부숙도가 적정하지 여부도 조사했다. 부숙도란 퇴비·액비가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일컫는 것이다.

점검 결과 부적정 액비살포 3건,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위반 3건, 가축분뇨 방치 1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제주도자치경찰단 고발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또한 미부숙 상태의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조치를 내렸다.

한편 위반사항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은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는 2019년 11건, 2020년 7건이었다. 송은범기자

### 동거녀 자녀 학대 40대 집유

동거녀의 자녀를 학대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봄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안을 돌아다니는 이유로 동거녀 자녀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고, 오른쪽팔을 깨문 혐의도 있다.

송은범기자

# 보이스피싱 중국인 수거책 검거

### 피해자 속여 7500여만원 사기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계좌에 입금해 둔 돈이 이체될 가능성이 있다. 돈을 뽑아 집안 편지보관함에 놔둬라"고 지시한 뒤 돈을 몰래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제주뿐만 아니라 전남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1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인천에서 붙잡혔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강민성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14이틀에 걸쳐 수사·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 3차례에 걸쳐

## 그랜드보청기

**한카워맛이사은대행사!!**

**선착순, 20만원상당 녹음증정**

**9월 한달간 배터리 ₩20,000 ▶ ₩9,000 할인행사**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을 흔저 전화 주심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겹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 ▶ 인부리 형성과 뿌리손상 방지
- ▶ 미수익기간 단축
-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할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부터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갈 / 금굴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개원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개**

**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 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3083 / 제 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450-4316 / 010-6550-4316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 감귤묘목

유라조생	4년생
황금향	5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한라봉	4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생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년생
감평(레드향)	1년생
방자묘	1년생

유라조생 접수분양계약

## 한림종묘사

010-3690-2453

## 감귤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변이지),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방자묘목(1000본 이상)

**오하라베니**

자원묘목 착과모습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010-2691-1883